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

6월 11일 금요일	보 도 자 료	생명의 땅 으뜸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국	식량원예과	과장	박철승	팀장	정원진	☎	286-6470

전남도, 올 여름 폭염 등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독려

- 고추, 떫은감 등 가입률 대폭 증가, 벼·콩 등 꼭 가입하길 -

==========

전남도는 올 여름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국지적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폭염일수는 평년(9.8일)보다 상회하며, 태풍도 1~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는 농가의 보험가입 독려를 위해 도비 124억원을 포함 총 124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공익직불제와 연계하여 대면홍보, 가입안내 문자발송,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보험 가입 홍보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5월말 현재 4만 5천 농가가 도비 70억원 등 총 697억원을 지원받아 4만 6372ha를 가입했다. 가입기간이 종료된 일부 품목의 경우 전년 대비 가입률이 대폭 증가했다. 고추는 54%(가입면적 2,297ha)가 가입해 전년 대비 12%, 떫은감은 59%(1,706ha)가 가입해 5% 이상 늘었다.

6월 10일 현재 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벼, 원예시설(작물포함) 등으로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기간은 벼는 6월 25일까지이고, 콩은 6월 2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박철승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올 여름은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보됐다”며 “농가에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록적인 폭염으로 기록된 지난 2018년 폭염과 햇빛 데임(일소)으로 과수 등에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2천 농가에 보험금 37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 관련 사진



▲ 콩 피해사진



▲ 단감 햇볕 데임 사진